

## 同素逆順 漢字語 形成의 制約 및 淘汰 機制

郭秋雯\*

### 1. 同素逆順 漢字語의 定義

한국어에서는 두 어소로 구성된 한자 복합어가 많다. 그 중에 ‘來往—往來, 施設—設施, 動搖—搖動, 相互—互相…’ 등처럼 쌍으로 두 어소 위치를 뒤바꾸어 단어를 형성하는 어휘들이 있는데 이들을 同素逆順 漢字語라고 하겠다.<sup>1</sup> 동소역순 한자어란, 이음절 한자합성어 중에 어소 순서가 도치되어 단어를 형성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이 두 한자어를 구성하는 어소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 즉, ‘同素’ 라는 말은 두 어소의 의미가 같거나 연관성이 있으며, 어휘에서 두 어소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도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故事’의 ‘故’는 형용사로 ‘옛’을 의미하고, ‘事故’의 ‘故’는 명사로서 ‘이유, 사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어휘에 있어서 어소 ‘故’는 의미나 품사가 다 달라 동일한 어소로 볼 수 없으므로 한 쌍의 동소역순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字의 倒置가 되었을 뿐이므로 語素의 倒置가 아니다. 이런 예들은 본고의 연구 대상 범주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그러나 의미가 다르거나 혹은 품사기능이 각각 다른 두 어소로 이루어진 어휘가 동소역순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國王—王國’에서 두 어휘는 뜻이 다르지만 연관성이 있어(나라의 임금—임금이 다스리는 나라) 어소도치 한자어로 생각될 수 있다. 즉, 國王과 王國의 ‘國’과 ‘王’은 각각 ‘나라’와 ‘임금’을 지칭하는 동일한 어소로 어소도치 한자어가 된다. 또한, ‘心腹—腹心’의 ‘心’과 ‘腹’은 본래 중요한 신체 기관을 가리키는 단어로 후대에 ‘씩 긴요하여 없어서는 안 될 사물’과 ‘마음 놓고 부리거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등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의미가 原意와 아무 관계가 없는 듯하지만 이 둘은 의미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心腹—腹心’은 ‘心’과 ‘腹’의 중심 原意인 ‘중심 부분’에서 의미가 확대되어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어소로 간주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 둘은 동소역순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政治大學韓語系

<sup>1</sup> 한국에서 어소도치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다. ‘음절의 교체’, ‘漢字語의 語素 配合 構造 (김종택:1972)’, ‘자순도치 한자어 (성환갑:2003, 장명희:2004)’, ‘한자어의 성분도치 현상 (박일동:1993)’, ‘어소도치 한자어 (묘춘매:1999)’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 2. 同素逆順 漢字語의 生成

同素逆順 漢字語는 같은 어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어소의 순서가 뒤바뀐 한 쌍의 단어로, 중국어에서 中古 時期(魏晉南北朝~隋唐)에 단음절어가 이음절어화되는 과정 중에 생성되었다. 중국 한자어를 보면 上古時期에 單音節이 많았고 中古 時期에 이르러 雙音節로 구성된 複合詞가 많이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한자의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소역순어는 그 당시 이음절어화되는 경향의 영향을 받아 대량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中古에 이르러서야 이음절어가 많이 출현되었는데, 단음절에서 이음절어로 발전하는 과정 중에 어소 순서가 고정적이지 않았던 과도기가 분명히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적인 단계에 대량의 합성어가 스스로 어소 순서를 도치하여 두 개의 형태를 생성하고, 동소역순어가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만들어진 동소역순어는 同義나 類義관계를 가지는 두 어소가 並列構造로 합쳐진 것이 일반적이었다. 並列構造로 연결된 두 어소는 핵심어와 종속어의 관계가 아닌 것이며, 이들은 동등한 자격으로 병렬된 것으로 어순이 바뀌어도 연결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이처럼 上古부터 中古초기에 同義나 類義관계에 있는 두 어소가 병렬적 연결을 한 후에 순서가 임의로 바뀌어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최초의 동소 역순어로는 《詩經》에서 ‘衣裳-裳衣’가 보인다. 詩에서 보듯이 ‘衣裳’과 ‘裳衣’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앞에서는 ‘明’과 押韻을 맞추기 위해서 ‘衣裳’을 쓰고 뒤에서는 ‘晞’와 押韻을 맞추기 위해서 ‘裳衣’를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詩經·齊風·東方未明》: 東方未明, 顛倒衣裳。顛之倒之, 自公召之。東方未晞,  
顛倒裳衣。倒之顛之, 自公令之。

이와 같이 중국어의 시에서는 항상 押韻을 사용하였고 聲韻의 조화 등 音律의 수요에 의해 두 글자의 순서를 전도시켜 사용하였다. 이는 동소역순어의 생성을 촉진한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 한편, 현대에 와서 시나 소설, 수필에서 修辭적인 요구나 문장 전체 유창도의 수요 혹은 동일한 어휘를 중복하지 않도록 표현하기 위해 역순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소역순어는 그들의 어소 순서가 도치되어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 어휘에만 국한된다는 조건이 요구된다. 이는 어소도치어의 생성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본고에서 ‘동소역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뒷받침해 주는 것 중의 하나다.

한국어에서는 동소역순 한자어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생성 과정이나 역순어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오래 전부터 중국어에서 한쌍의 역순어가 직접 차용되어 한국어에 수용된 것도 있고, 단어의 재구성 과정에서 기존의 어소를 재할

용하거나 어소의 위치를 바꿔 다시 결합하여 쓰이는 것도 보인다. 전자는 보통 중국어에서 전래된 역순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 지금 양국에 쓰이고 있는 동소역순어의 의미나 형태 등에는 차이가 있다. 후자는 중국어에서 전래된 역순어가 한국어의 형태적·통사적 어휘 규칙과 제약에 따라 변화하게 된 것이 있고, 언중들이 한자어 하나를 가지고 신어를 조어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어소의 위치를 바꿔 쓰면서 언어 생활 속에서 점차 고정된 것도 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2.1 中國語에서 借用된 동소역순 한자어

중국에서 차용된 동소역순 한자어는 양국에서 과거 몇 천 년동안 어휘 변천을 거쳐 현대에 이르러서 달리 쓰이게 된 것이 많다. 지금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 동소역순어 양쪽이 다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만 쓰이는 경우도 있고 양쪽이 다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편, 중국어에서 전래된 한국 한자어는 한국어에서 原意를 유지하여 쓰이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의미가 확대되었거나 변하여 쓰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減縮－縮減, 綱紀－紀綱, 繼承－承繼, 欺詐－詐欺, 答應－應答, 名聲－聲名,  
相互－互相, 菜蔬－蔬菜, 牙齒－齒牙, 糧食－食糧, 離別－別離, 移轉－轉移,  
一統－統一, 利便－便利, 制限－限制, 居住－住居, 苦痛－痛苦, 光榮－榮光,  
積蓄－蓄積……

### 蔬菜 0－菜蔬 68

蔬菜 : 심어 가꾸는 온갖 푸성귀와 나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史記/本紀/卷七』: 瓚曰「士卒食蔬菜, 以菽雜半之。」

菜蔬 : 밭에서 기르는 농작물. 주로 그 잎이나 줄기, 열매 등은 식용한다.

『史記/列傳/卷六十七』: 集解馬融曰: 「樹五穀曰稼, 樹菜蔬曰圃。」

### 慣習 56－習慣 129

慣習 :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

『史記/世家/卷四十三』: 韓國四戰之地, 軍士慣習, 倍於餘國。

『顏氏家訓集解/卷第三(北齊)』: 法術, 武夫則慣習弓馬, 文士則講議經書。

習慣 :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顏氏家訓集解/卷第一(北齊)』: 少成若天性, 習慣如自然。

### 光榮 0－榮光 40

榮光 :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 광영(光榮)

『漢書/列傳/卷七十二』: 何以孝弟為? 財多而光榮。= 영광

『文選/卷第三十六(梁)』: 尚書中候曰: 帝堯文明, 榮光出河, 休氣四塞。= 빛

『清實錄/太宗文皇帝實錄/卷之四十五』: 朕惟樹儀型於內闈懿德聿彰。膺褒予於朝章。榮光特賁。= 영광

居住 20—住居 33

住居：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 또는 그런 집. ≡거주(居住).

『魏書/列傳/卷五十八(北齊)』：吾今日不為貧賤，然居住舍宅不作壯麗華飾者，正慮汝等後世不賢，不能保守之，方為勢家作奪。

『北齊書/帝紀/卷一(唐)』：住居白道南，數有赤光紫氣之異，隣人以為怪，勸徙居以避之。

## 2.2 韓國語의 規範과 慣習에 따라 형성된 동소역순 한자어

한자어가 한국에 전래된 후에 한국어에서 어느 한 쪽의 한자어가 사용되다가 스스로 어소의 순서가 뒤바뀌어 다른 단어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AB 두 어휘 중 A 만 중국 고전에서 보이는데 이때 B 는 중국어에서 차용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기존 한자를 가지고 스스로 만들었거나 A 를 B 와 도치하여 사용했거나 하는 경우다. 아래 동소역순어 중 빈도수가 0 인 어휘는 중국의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한자어사전」에도 등재되지 않는 것이 많다. 이는 한국인이 스스로 한 어휘를 도치하여 그의 역순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된다.

系派—派系, 寄贈—贈寄, 立證—證立, 結論—論結, 苦生—生苦, 交通—通交,  
餘裕—裕餘, 出家—家出, 改定—定改, 文句—句文, 國旗—旗國, 請招—招請,  
費消—消費…

苦生 114—生苦 0

苦生：어렵고 고된 일을 겪음. 또는 그런 일이나 생활.

『宋書/列傳/卷八十五(梁)』：此段不堪見賓，已數十日，持此苦生，而使銓綜九流，應對無方之訴。

『大正新脩大藏經/第四卷』：六情所愛為衰。衰不止便苦生。何謂苦生。姪怒癡火起。

生苦：생활고.

請招 0—招請 42

請招：=초청

『元史/本紀/卷十一(明)』：丁丑，唆都請招三佛齊等八國，不從。=招降

『南史/列傳/卷七十五(唐)』：江州刺史每相招請，續之不尚峻節，頗從之游。

改定 30—定改 0

改定：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 다시 정함.

『漢書/列傳/卷四十八』：及欲改定制度，以漢為土德。

定改：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기로 결심하는 일. 고해 성사의 다섯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회개하다

한편, 중국어에서 전래된 두 가지가 모두 한국어에서 사용되다가 한국어의 어순에 맞는 한 쪽만이 선택되어 사용된 경우도 있다. ‘讀經—經讀, 造酒—酒造, 祝福—福祝’의 ‘經讀, 酒造, 福祝’ 등은 중국어에서는 述目 구

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讀經, 造酒, 祝福’ 등의 어소 순서가 뒤바뀌어 한국어의 目述 구조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비해, 다음과 같이 ‘利得’ 같은 目述 구조로 된 한자어는 한중 어순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한국어의 언어 규칙에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런데 중국 고전을 살펴보면 目述 구조로 이루어진 어휘도 중국어에서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得利’와 ‘利得’ 두 어휘는 한국에 전래된 후 ‘利得’이 한국어의 어순에 알맞기 때문에 한국인에 의해 선택된 가능성도 생각해 볼 만하다. ‘食禁, 服着, 面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得利 0-利得 18

得利: 이익을 얻음.

『漢書/志/卷二十四下』: 言穀雜鉛鐵, 其術精妙, 不可覺知, 而得利甚厚, 故令人輕犯之, 姦不可止也。

利得: 이익을 얻음. 또는 그 이익.

『三國志/魏書/卷二十四(晉)』: 因通使命, 利得印綬, 而道路護送, 所損滋多。

『通典/邊防典/卷第一百九十三(唐)』: 又常利得中國縑素, 解以為胡綾紺紋。

#### 见面 0-面接 16

见面: 맞아들이어 대면함.

『明史/列傳/卷三百二(清)』: 坐臥於旁, 奠食相對, 非姑不见面。

面接: 1. 서로 대면하여 만나 봄. 2. =면접시험.

『南齊書/列傳/卷五十一(梁)』: 屏居家巷, 置宅南岡下, 面接松山。=1

『清實錄/太宗文皇帝/卷之十三』: 使臣未蒙面接。國書亦無回答。孤固已怪之。=접견

### 2.3 韓國 自生의 同素逆順 漢字語

한국인이 기존의 한자를 가지고 스스로 만든 어휘가 있는데 이들은 중국 고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신으로 「한국한자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어휘라 한국에서 자생한 한자어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科賊-賊科’는 어소가 다 한자이지만 중국어에는 없고 한국어에서만 쓰이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한국에서 자생한 동소역순 한자어로 정의하기로 한다.

#### 科賊 0-賊科 0

科賊: 과거에 합격하기 위하여 온갖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

『秋官志 3, 考律部, 續條. 科場, 武科』: 今上九年, 兵曹草記…鄭光國所為, 不可但以代射同情論, 此是科賊之最嚚頑者。<sup>2</sup>

賊科: 조선 시기에, 과장(科場)에서 남의 답안을 훔쳐 자기의 이름을 써내던 일.

『續大典 4, 兵曹, 武科』: 科場用奸者, 從輕重論罪(賊科者, 絕島為奴)

#### 給債 0-債給 0

<sup>2</sup> 韓國漢字語辭典(1992), 檀國大學校

給債：돈을 꾸어 줌.

《續大典 4, 戶典, 徵債》：以穀給債，以錢捧利者，許負債者告發。

債給：남에게 돈을 꾸어 줌.

《儒胥必知, 所志, 債訟所志》：錢文三百兩乙，以五里邊捧手記，債給是白遣，限則周年為期，使之興販矣。

劇唱 0—唱劇 0

劇唱：전통적인 판소리나 그 형식을 빌려 만든 가극(歌劇).

唱劇：=판소리.

현대에 와서 ‘獨韓—韓獨, 韓中—中韓, 韓佛—佛韓...’ 처럼 나라 이름으로 이루어진 동소역순 한자어 역시 한국어에서 자생한 동소역순 한자어의 하나이다.

## 2.4 開化期에 西歐文明이나 日本語의 影響으로 形成된 同素逆順 漢字語

한국은 開化期 때에 일본의 정치적 영향을 받아 西歐文明이 대량으로 유입되었으며 이에 봉건적 사회 질서가 파괴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변화의 영향 아래 어휘도 이에 따라 변천하게 된다. 그 중 하나는 日製 한자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이다. 그 당시 日製 한자어는 한국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金利 77—利金 0

金利：빌려 준 돈이나 예금 따위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

利金：1.=이익금. 2.=변리(=금리)

貸賃 0—賃貸 42

貸賃：물건을 빌려 주고 받는 돈.

賃貸：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 줌.

『清稗類鈔/農商類』：凡買賣業，賃貸業，製造業或加工業，供給電氣。

賃貸는 日製 한자어이다. 청나라 때에 중국어도 일본에서 유입된 한자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흔적을 고전에서 간혹 확인할 수 있다. 중국어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日製 한자어를 받아들였지만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중국사람의 정서에 맞게 고쳐 쓰는 데 많이 힘썼기 때문에 현대에는 日製 한자어의 흔적이 상대적으로 적게 남아 있는 편이다.

종합해 보면 한국 동소역순 한자어의 생성 요인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중국어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던 동소역순어가 한국어에 그대로 차용된 경우이다. 둘째, 한자어가 한국어에 전래된 후, 한국어의 규범과 언어 관습에 따라 변모되어 형성된 경우이다. 셋째, 한국인이 기존의 한자를 재활용하여 한국어식의 한자어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한국 자생의 동소역순어이다. 넷째, 개화기에 西歐文明을 일제 한자어를 통해 받아들인 동소역순 한자어다.

### 3. 韓國 同素逆順 漢字語 形成의 制約

동소역순어는 구조에 따라서 동일한 구조, 즉 並列관계에 있는 것과 동일하지 않은 구조, 즉 수식, 주술, 술목... 등의 관계에 있는 것 등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구조 관계에 있는 동소역순어는 의미나 용법상에서 그들이 분화되어 새로운 문법적 기능을 맡게 됨으로써 이들은 도태되지 않는 반면, 병렬 구성으로 도치된 한자어는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하여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 그렇지 못한 한쪽은 도태된다.<sup>3</sup> 본고에서는 병렬 구조로 이루어진 동소역순어를 대상으로 사용 빈도가 낮은 쪽이 어떤 제약을 받아 사용 빈도가 줄고 결과적으로 도태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어에 처음으로 나타났던 ‘衣裳—裳衣’ 동소역순어는 《詩經》에서 押韻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 후부터 聲韻의 조화 등 音律의 수요에 의해 두 글자의 순서를 전도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이것으로 추론해 보면 음운론적 규칙이 동소역순어의 순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중국어가 성조로 글자의 의미를 구별하는 언어임은 주지의 일이다. 예를 들면, ‘分身—身分’ 두 어휘의 分은 성조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도 다르다. ‘分身’의 ‘分’은 1성으로 ‘나누다’를 뜻하고 ‘身分’의 ‘分’은 4성으로 ‘개인의 사회적인 위치나 직분(職分)’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쌍은 동소역순어가 아니다. 이와 같이 성조는 중국어의 여러 음운론적 규칙 중에 무엇보다 큰 역할을 담당한다. 더 말하자면, 동소역순어의 경우에 있어서 성조는 어소의 異同을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성어의 결합 순서를 지배하기도 한다.

한국어에서는 의미로만 어소의 異同을 판단하고 어휘의 제약과 언어 습관 등의 규칙으로 합성어의 결합 순서를 결정한다. 어휘의 의미와 기존의 문화나 풍습 등 요인이 동소역순어의 존재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유교 국가인 한중 양국에는 男尊女卑라는 사고방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쓰이는 ‘女男’이라는 말은 생기기 어렵다. 따라서 ‘男女—女男’ 같은 역순어도 없는 것이다.<sup>4</sup> 이것은 기존의 문화나 풍습으로 인해 형성된 언어 습관 때문에 생기게 된 현상이다.

한편 순서관계, 因果관계, 종속관계, 언중의 가치관 등 제약도 동소역순어의 존재 여부를 지배한다. 가령, 시간 순서의 제약을 받고 있는 ‘今古(—

<sup>3</sup> 병렬 구성을 보이는 동소역순어가 두 쪽이 모두 사용되는 예도 존재한다. ‘當該11—該當68, 禮儀48—儀禮40, 保安30—安保114, 性品22—品性10, 居住20—住居33, 個別44—別個38’ 등이 이것이다.

<sup>4</sup> 현대중국어에서 ‘남녀평등’과 동일한 의미로 ‘女男平等’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여자 먼저’를 강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말이다.

古今), 終始(一始終), 가치관의 제약을 받고 있는 凶吉(一吉凶), 失得(一得失) 등이 한국어 사전에서 등재되어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없어져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언어 습관의 제약으로 볼 수가 있다.

한국어에서는 사용빈도가 낮은 쪽이 항상 어순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일반적인 견해로 자리잡고 있다. 어순에 관한 논의로 채완(1986), 노대규(1982)와 정민영(1992)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채완(1986)은 어순에 영향을 주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공간에 관련된 표현에 있어서는 ‘위, 앞, 오른쪽, 수직’ 이 선행하고, 시간에 있어서는 ‘과거, 먼저’ 가 선행하며, 數에 있어서는 ‘單數-複數-兩數’ ‘基數-序數’ 의 순서로 나타나며, 긍정적 개념과 부정적 개념의 병렬에서는 긍정적 개념이 앞서고, 중요성이 큰 쪽이 앞에 온다고 하였다.

노대규(1982)는 한국어 합성어의 결합 순서를 지배하는 화용론적, 의미론적 법칙을 아홉 가지로 정리하였다. 그는 ①사건이나 행동 등이 먼저 발생한 것이, ②화자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 가까운 것이, ③화자에게 더 중요하고 더 관심이 있는 것이, ④남성의 의미 자질을 가진 요소가, ⑤성인의 의미 자질을 가진 요소가, ⑥인간 사회에서 강한 힘을 나타내는 요소가, ⑦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요소가, ⑧-⑨위쪽에나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선행한다고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논의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즉 아래 어휘들은 각각 어순의 제약을 받아서 있을 수 없는 어휘라고 주장한다.<sup>5</sup>

- (1) ① 陽陰, 死生, 白黑, 入出  
 ② 裏表, 骨皮  
 ③ 益損, 富貧  
 ④-⑤ 女男, 女子, 妻夫, 子父, 子母  
 ⑥ 右左, 客主, 賤貴, 白黑, 民官  
 ⑦ 凶吉, 死生, 憎愛, 醜美, 失得  
 ⑧-⑨ 野山, 聽視, 橫縱, 身心, 肉骨, 外內

정민영(1992)은 주로 노대규(1982), 채완(1986)의 주장을 따르면서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민영(1992)은 ‘經緯’에 대해 ‘가로-세로’의 개념이 아니라 ‘縱橫’의 개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채완(1986)의 논의와 다르다. 또한 ‘表裏, 皮骨’을 예로 들어 ‘안/밖’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나’로부터 가까운 개념인 ‘겉’이 ‘속’에 앞서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sup>6</sup> ‘苦樂, 損益, 輕重, 貧富, 黑白’ 등도 부정적 개념을 기피하거나 경계하려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부정적 개념이 앞선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sup>5</sup> 노대규(1982), p.5-23 참조.

<sup>6</sup> 정민영(1992), p.85-88 참조.

노대규(1982)에서 화자에게 중요성이나 관심사가 되는 요소가 선행한다는 주장과 유사하다. 다만, ‘黑白’의 경우 노대규(1982)에서는 ‘사건이나 행동의 순서’와 ‘강한 힘을 나타내는 요소가 선행함’ 등 두 가지의 법칙에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정민영(1992)의 논의와 대조된다.

이와 같이 병렬관계에 있는 한자 합성어의 결합 순서에 대하여 학자들에 따라 주장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들 어순 법칙을 모두 고려해 병렬관계에 있는 한국어 동소역순 한자어의 사용 양상을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예문(2~6)에서 어순 법칙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어휘가 발견된다. 빈도수가 0이 된 오른쪽은 어순의 법칙에 어긋나서 있을 수 없는 어휘임에도 사전에 실려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사전에 등재된 어휘는 실제로 잘 쓰이지 않더라도 모두 문법적 어휘이어야 하는데 어순 법칙에 어긋나는 어휘가 실린 것은 문제가 된다.<sup>7</sup> 예를 들어 노대규(1982)에서 제시된 ⑦번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요소가 선행한다’는 규칙에 의하면 ‘凶吉, 死生, 憎愛, 醜美, 失得’ 등은 비문법적 어휘가 되는데 국어대사전에 모두 등재되어 있다.

(2)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동소역순어

生死 15-死生 0    始終 12-終始 0    問答 3-答問 0    承繼 22-繼承 0  
陰陽 11-陽陰 0    出入 50-入出 0    變改 1-改變 0    見聞 6-聞見 0  
黑白 38-白黑 0    古今 2-今古 0    決議 11-議決 10

(3) 공간이나 위치 개념을 나타내는 동소역순어

위/아래 : 山野 4-野山 13    視聽 10-聽視 0  
앞/뒤, 좌/우 : 左右 77-右左 0  
안/밖 : 心身 19-身心 0, 骨肉 0-肉骨 0

(4) 중요성이나 관심사 개념을 나타내는 동소역순어

富貴 7-貴富 0    貧賤 1-賤貧 0    權勢 6-勢權 0    心身 19-身心 0  
聖賢 3-賢聖 0    官民 1-民官 1    苦難 20-難苦 0    苦惱 34-惱苦 0  
困窮 2-窮困 0    苦痛 225-痛苦 0    權威 101-威權 0    齒牙 38-牙齒 0

(5) 긍정적/부정적 개념을 나타내는 동소역순어

吉凶 1-凶吉 0    得失 7-失得 0    美醜 0-醜美 0    喜悲 2-悲喜 0  
愛憎 3-憎愛 0    輕重 1-重輕 0    長短 1-短長 0

(6) 남성/여성 등 長幼尊卑 순서를 나타내는 동소역순어

母子 10-子母 0

<sup>7</sup> 이런 어휘들은 예외로 보면 좋겠지만 예외라고 하기에는 그 수량이 너무 많다. 한자어 조어법이나 어순의 규칙에 어긋나는 어휘들을 사전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위험 부담이 있어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

한자어에는 ‘貧富, 輕重, 喜悲, 貴賤, 愛憎, 得失…’ 등과 같이 대립 관계에 있는 두 글자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어휘가 많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이러한 어휘들은 여러 법칙이 달리 적용된다. 이를테면, ‘긍정적 개념과 중요성이 강한 요소가 선행한다’는 규칙이 있는데 적용될 수 없는 어휘를 위해서 ‘부정적 개념을 기피하거나 경계하려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부정적 개념이 앞선다’ 나 ‘화자에게 중요성이나 관심사가 되는 요소가 선행한다’는 규칙을 따로 설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똑같이 대립관계에 있는 ‘貧富, 苦樂, 損益, 輕重, 黑白’ 과 ‘喜悲, 貴賤, 愛憎, 得失’은 다른 어순 법칙이 적용된다.

또한, 정민영(1992)에 따르면 ‘輕重, 苦樂, 損益, 貧富, 黑白’ 등은 부정적 개념을 기피하거나 경계하기 때문에 부정적 요소가 앞서게 된다 규칙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앞서는 ‘悲喜, 憎愛, 失得, 凶吉…’ 등은 왜 이 규칙이 적용되지 못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들 어휘는 기존 주장, 즉 ‘긍정적 개념과 중요성이 강한 요소가 선행한다’는 주장에 의해 있을 수 없는 어휘로 취급되었는데 이러한 어휘들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순이 생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아래와 같이 있을 수 없는 ‘富貧, 賤貴, 死生, 憎愛, 失得…’ 등 어휘는 古漢語에서 다 쓰였던 어휘들이다. 즉 대립관계에 있는 두 글자로 이루어진 동소 역순어는 古漢語에서 양쪽 모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들 어휘가 어떤 제약을 받아서 소멸되었느냐는 것이다. 이는 절대로 위에서 제시된 어순법칙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대립관계에 있는 동소역순어의 어순을 지배하는 요인이 과연 어휘 규칙 외에도 또 다른 어떤 규칙이 있지 않을까 사료되며 이 문제는 한국 학계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貴賤—賤貴

『史記/書/卷二十三』: 所謂辨者, 貴賤有等, 長少有差, 貧富輕重皆有稱也。

『文選/卷第五十九(梁)』: ...牛, 然後及馬, 參伍其價, 以類相推, 則知馬之賤貴。

#### 貧富—富貧

『文選/卷第五十四(梁)』: 然所謂命者, 死生焉, 貴賤焉, 貧富焉, 治亂焉, 禍福焉。此十者, 天之所賦也。

『南齊書/列傳/卷二十二(梁)』: 才有優劣, 位有通塞, 運有富貧, 此自然理, 無足以相陵侮。

#### 愛憎—憎愛

『三國志/吳書/卷五十七』: 專用私情, 愛憎不由公理, 豔、彪皆坐自殺。

『三國志/吳書/卷五十八』: 況其姦心素篤, 而憎愛移易哉? 苟患失之, 無所不至。

#### 得失—失得

『漢書/列傳/卷四十九』: 擅生殺之力, 通壅塞之途, 權輕重之數, 論得失之道, 使遠近情偽必見於上, 謂之術。

『漢書/列傳/卷八十五』: 臣幸得備邊部之吏, 不知本朝失得, 瞽言觸忌諱, 罪當萬死。

한편, ‘苦痛－痛苦, 苦難－難苦, 困窮－窮困, 權威－威權’ 등 동소역순 한자어에도 미결의 과제가 남아 있다. 이들 동소역순어의 왼쪽은 중요성이나 관심사 개념을 나타내는 요소가 앞선다는 어휘로 분류될 수 있는데 사전에 등재된 오른쪽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 이를테면, 왜 ‘苦’가 ‘痛’이나 ‘難’보다 화자에게 관심사가 되는 것인지? ‘權’이 왜 ‘威’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그 기준들이 모든 화자에게 똑같은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입증이 요구된다.

위에서 제시한 동소역순 한자어들은 어순 법칙에 어긋나는 예의 일부로 어순 법칙에 어긋나는 어휘들은 이보다 그 수가 더 많을 것이다. 여러 규칙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는 어휘들을 위해 또 다른 규칙을 설정한다면 복잡하고 혼동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언어 사용 관습의 제약만을 어순을 지배하는 淘汰 機制로 삼아 몇 천 쌍의 동소역순 한자어 존재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소역순 한자어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단편적이며 주관적인 오류가 일어날 것이다.

한국 한자어는 중국어에서 차용되어 쓰이다가 한국어의 언어 습관에 따라 변한 것이 있지만 아직도 중국어의 특성을 지니는 어휘가 많다. 따라서 이들 미결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국어 동소역순어의 특성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중국어에도 존재하는가? 중국어에서 이들 문제는 성조 규칙에 의해 많이 해결되었다. 성조의 제약이란, ‘平(陰平→陽平)→上→去’, 즉 1, 2, 3, 4 성의 순에 의해 이음절 복합어의 어순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輕重, 苦樂, 損益, 貧富, 黑白…’ 등 ‘부정적 요소가 앞서’는 어휘들은 아래와 같이 어휘적 규칙보다 성조의 규칙에 먼저 적용된다.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성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성조 규칙: 輕(1)重(4), 苦(3)樂(4), 損(3)益(4), 貧(2)富(4), 黑(1)白(2), 生(1)死(3), 出(1)入(4), 陰(1)陽(2), 長(2)短(3) (괄호 안 숫자가 성조의 표시임.)

어휘적 제약

(가) 긍정적/부정적칙: 喜悲, 貴賤, 愛憎, 得失, 吉凶

(나) 시간적 순서: 古今, 苦樂, 始終, 生死, 陰陽, 出入

중국어에서 어순을 지배하는 요인은 음운론적 규칙이 먼저 적용되고 언어 관습 등이 포함된 어휘적 규칙이 다음으로 적용된다.<sup>8</sup>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어휘의 어순 문제는 대부분이 음운론적 규칙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脛(3)肉(4), 權(2)勢(4), 苦(3)難(4), 官(1)民(2), 苦(3→2)<sup>9</sup>惱(3)’ 등이 이것이다.

<sup>8</sup> 어휘적 제약은 1.호응의 제약, 2.의미의 제약, 3.어법상의 제약, 4.윤리적 제약, 5.사회적 제약, 6.상대적 제약 등 6가지가 있다. (김종택, 1978:71-84)

<sup>9</sup> 중국어에서 ‘3성+3성’의 경우, 첫째의 3성은 2성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편, ‘苦樂, 生死, 陰陽, 出入’ 등처럼 음운론적 및 어휘적 규칙에 동시에 적용되는 어휘도 있다.

중국어에서는 음운, 의미와 화용 등의 상호작용이 동소역순어의 淘汰機制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어의 음운학에서는 음절을 聲調(1, 2, 3, 4 성), 聲母(清濁音), 韻母(開口度) 등으로 구분하는데 바로 이 세 가지가 동소역순어의 어순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중국어에서 동소역순어는 기원 전의 上古부터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고, 中古에 이르러서 이음절어화의 수요에 따라 대량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近代에 와서는 이들 역순어 중에 계속 쓰이는 것보다 도태된 어휘가 더 많아졌다. 병렬관계에 있는 중국어 동소역순어 중 음운의 규칙에 어긋나 도태된 어휘가 70%를 차지한다. 음운론적 규칙 외에도 어휘의 의미, 언어 사용 관습 등이 포함된 어휘적 규칙(長/幼, 尊/卑, 男/女, 肯定的/否定的, 大/小)과 통사적 규칙(‘S+V/A:情熱(정이 뜨겁다)’ ‘V+O:記事(일을 기록함)’ 등도 동소역순어의 어순에 영향을 준다.<sup>10</sup> 즉 병렬관계에 있는 중국어 동소역순어들이 음운적, 어휘적, 통사적 등의 제약을 받아 자동으로 淘汰되는 것이다. 한국어 동소역순어도 이와 같은 제약들의 영향을 받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 4. 韓國 同素逆順 漢字語 淘汰 機制의 再設定

본 절에서는 ‘한중 상용 어휘가 다른 동소역순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음운론적·통사적·어휘적 등 여러 규칙을 통해서 한국 동소역순어의 도태 기제를 세워 보고자 한다. 한국어는 성조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성조를 도태 기제로 설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성조가 동소역순한자어의 어순을 지배하는 큰 요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 성조를 제외한 다른 음성적 제약이 한국어 동소역순 한자어의 어순 결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성조를 제외한 음성적 제약이 병렬 구조에 있는 어휘의 어순을 결정한다는 주장은 중국 언어학에서만 아니라 영어학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Ross(1982:282)는 병렬 구조의 순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음성적 요인으로 ‘Short/Long’ 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적 요인으로 ‘Me/Not Me’ 이다. 음성적 요인인 ‘Short/Long’ 규칙으로는 아래의 9 가지 규칙을 들고 있다.<sup>11</sup>

<sup>10</sup> 張巍(2005:87-90)에서는 先秦부터 中古까지 《莊子》를 비롯한 십여 권의 고서에서 약 1,464쌍의 동소역순어를 찾았다. 이들 중 현대에 와서 두 어휘가 다 도태된 것은 705쌍이고, 그 나머지 759쌍 중에 633쌍은 한 어휘가 도태되고 한 어휘만 남아 동소역순어가 더 이상 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현재까지 계속 쓰이고 있는 동소역순어는 126쌍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들은 전체 동소역순어의 8.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sup>11</sup> 김승렬(1988:185-186) 재인용.

법칙명칭	자리 1 (A)	자리 2 (B)
a.i	非音節的 要素	音節
ii	一音節	多音節
iii	多音節이되 적은 쪽	多音節이되 많은 쪽
b.	짧은 單母音	長母音 또는 重母音
c.	보다 적은 語頭 子音	보다 많은 語頭 子音
d.	보다 장애가 적은 單子音	보다 장애가 많은 單子音
e.	高母音	低母音
	똑같은 높이일때는 제 2 formant 가 높은 쪽	똑같은 높이일때는 제 2 formant 가 낮은 쪽
f.	보다 적은 語末 子音	보다 많은 語末 子音
g.	보다 장애가 적은 語末 單子音	보다 장애가 큰 語末 單子音

김승렬(1988)은 위의 음성적 요인들을 한국어 어휘의 어순에 적용한 바 있다. ‘장-장구, 북-장구, 개-돼지, 마(<말)-소, 구(<굴)-조개, 은금-보배, 비-바람, 비-구름, 눈-비, 푸(<풀)-나무, 주(<줄)-대’ 등 단순 병렬 구조에 있는 어휘 11 개를 예로 들어 이들 순서 결정 요인은 心理的인 것이기보다는 音聲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앞 성분이 1 音節, 뒤 성분이 2 音節인 것이 많고(7 개), 앞 성분이 음성적 변화, 즉 ‘ㄹ’ 탈락을 보이는 것들이 많아 결과적으로 앞 성분은 開音節이 된다고 하였다. 김승렬(1988)은 순 한국어 어휘의 어순에 대해서만 검토하였는데 이들 법칙도 동소역순 한자어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본고에서는 Ross(1982)의 b, d, e 등 3 가지 규칙, 즉 高母音이 低母音에, 單母音이 二重母音에, 淸音이 濁音에 선행하는 법칙들을 〈중국어에서 A 쪽만 쓰이고 한중 상용 어휘가 다른 동소역순어〉 17 쌍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는 중국어에서는 도태된 어휘가 무슨 요인으로 한국어에서는 잘 쓰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중국어에서 A 쪽만 쓰이고 한중 상용 어휘가 다른 것〉 → 17 쌍

糾紛 0—紛糾 58	期滿 0—滿期 20	聲音 0—音聲 60	方今 75—今方 142
設施 0—施設 336	壓抑 0—抑壓 60	境地 54—地境 94	保安 30—安保 114
來去 0—去來 182	惡劣 0—劣惡 24	容受 0—受容 45	議論 44—論議 188
平地 17—地平 30	避忌 0—忌避 36	門窓 0—窓門 108	品性 10—性品 22
容許 0—許容 73			

<高母音/低母音> → 8 개

地境, 地平, 施設, 受容, 去來, 抑壓, 音聲, 今方

<單母音/二重母音> → 6 개(3 개 중복)

紛糾, 地境, 受容, 論議, 地平, 許容

<清音/濁音>→5 개(2 개 중복)

忌避(전칭/차칭), 地平(전칭/차칭), 窓門(차칭/불칭불탁), 性品(전칭/차칭), 許容(차칭/불칭불탁)

<A 쪽이 음성적 변화를 거친 것>→1 개

劣惡(‘ㄹ’ 탈락)

<통사적·어휘적 규칙>→3 개(1 개 중복)

安保, 滿期, 窓門

결국 이 17 쌍 중에 ‘高母音/低母音’ 의 법칙에 적용된 어휘는 8 개이고, ‘單母音/二重母音’ 법칙이 적용된 어휘는 6 개인데 그중의 ‘地境, 受容, 地平’ 3 개는 동시에 ‘高母音/低母音’ 에 적용된다. ‘清音/濁音’ 에 적용된 어휘는 5 개가 있다. 그중의 ‘地平, 許容’ 은 동시에 ‘單母音/二重母音’ 에 적용된다. 음성적 변화를 거친 어휘는 ‘劣惡’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安保’ 와 ‘滿期’ 두 개를 제외하고 17 쌍 중 15 쌍의 B 쪽은 모두 음성적 법칙에 적용된다.

한편, <중국어에서 양쪽이 다 쓰이고 한중 상용 어휘가 다른 동소역순어> 31 쌍을 대상으로 한국어 동소역순어의 제약 選用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어에서 양쪽 다 쓰이고 한중 상용 어휘(A:한, B:중)가 다른 것> →31 個

減縮 21—縮減 0	苦痛 225—痛苦 0	紀綱 25—綱紀 0	論爭 78—爭論 3
途中 73—中途 13	文藝 25—藝文 0	銳敏 28—敏銳 0	補修 26—修補 0
相互 128—互相 0	食糧 115—糧食 11	承繼 22—繼承 0	額數 70—數額 0
榮光 40—光榮 0	外國 336—國外 12	運命 118—命運 0	慰安 24—安慰 1
源泉 26—泉源 0	應答 23—答應 0	移轉 28—轉移 1	離脫 24—脫離 0
點檢 44—檢點 0	制限 98—限制 0	住居 33—居住 20	錯雜 32—雜錯 0
菜蔬 68—蔬菜 0	剔抉 30—抉剔 0	蓄積 26—積蓄 0	趣旨 60—旨趣 0
齒牙 38—牙齒 0	平和 167—和平 4	限界 222—界限 0	

<高母音/低母音>→13 개

紀綱, 論爭, 榮光, 運命, 慰安, 應答, 移轉, 離脫, 制限, 住居, 蓄積, 齒牙, 平和

<單母音/二重母音 >→4 개

文藝, 承繼, 剔抉, 限界

<清音/濁音>→6 개(2 개 중복)

減縮(전칭/차칭), 苦痛(전칭/차칭), 相互(전칭/차칭), 食糧(전칭/불칭불탁), 制限(전칭/차칭), 齒牙(차칭/불칭불탁),

<A 쪽이 음성적 변화를 거친 것>→2 개

銳敏(‘ㄹ’ 탈락), 離脫(‘ㄹ’ 탈락),

<통사적 규칙>→5 개

수식관계: 額數, 途中, 補修, 外國, 趣旨

<어휘적 규칙>→1 개

순서관계: 點檢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중국어에서 양쪽이 다 쓰이고 한중 상용 어휘가 다른 동소역순어> 31 쌍 중 ‘高母音/低母音’의 법칙에 적용된 어휘는 13 개이고, ‘單母音/二重母音’ 법칙에 적용된 어휘는 4 개이며, ‘清音/濁音’에 적용된 어휘는 6 개가 적출되는데 그 중의 ‘制限, 齒牙’ 두 개가 동시에 ‘高母音/低母音’에 적용된다. 음성적 변화를 거친 어휘는 ‘銳敏’과 ‘離脫’ 두 개가 정리되었다. 나머지 6 개는 통사적·어휘적 규칙에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31 쌍 중 음성적 규칙에 적용된 A 쪽은 23 개이고 이는 약 전체의 74.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중국어에서 양쪽이 다 쓰이는 것과 A 쪽만 쓰이는 것과 상관없이 한중 상용 어휘가 다른 동소역순어 48 쌍 중 음성적 법칙에 적용된 한국어 상용 어휘는 38 개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의 동소역순 한자어는 어순 법칙보다 음성적 법칙이 한국어 동소역순 한자어의 순서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 ‘高母音/低母音’ 법칙의 영향이 제일 큰 것으로 보인다.

## 5. 結言

본고는 한국 동소역순 한자어의 특성, 형성과 변천, 그리고 의미 유형 및 의미 변화 과정을 동시에 살펴보고 동소역순 한자어에 대한 어휘 제약을 밝혀서 도태 기제를 세워 보았다.

한국의 기존 연구에서는 언어 사용 관습의 제약만을 어순을 지배하는 淘汰 機制로 삼아왔는데 몇 천 쌍의 동소역순 한자어 존재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데에 부족함이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음성적 측면에서 또다른 도태기제를 찾아보았다. 결국 ‘高母音/低母音, 單母音/二重母音, 清音/濁音’ 등 3가지의 음성적 규칙이 한국어 동소역순 한자어의 어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음성적 규칙, 어휘적 규칙과 통사적 규칙을 한국어 동소역순 한자어의 도태 기제로 설정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高母音/低母音, 單母音/二重母音, 清音/濁音’ 세 가지 규칙이 포함된 음성적 규칙과 통사적 규칙, 어휘적 규칙 등을 한국어 동소역순 한자어의 도태 기제로 설정하여 설명하였으나, 이 세 가지의 음성적 규칙으로만 동소역순 한자어의 어순을 검증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기초 자료>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조남호, 국립국어원, 2002

韓國漢字語辭典(1992), 檀國大學校

### <인터넷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08\\_new/index.jsp](http://www.korean.go.kr/08_new/index.jsp)

대만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 「漢籍全文資料庫計畫」,

<http://hanchi.ihp.sinica.edu.tw/ihp/hanji.htm>

대만교육부, 「教育部重編國語辭典修訂本」, <http://140.111.34.46/newDict/dict/index.html>

### <한국어 논문>

姜信沆(1990), 「訓民正音研究」, 成均館大學校出版社

김승렬(1988), 「국어어순 연구」, 한신문화사

김중택(1972), “複合 漢字語의 語素 配合 構造”, 「語文學」 27, 韓國語文學會, p.73-85

김중택(1978), “語彙的 制約과 統辭的 制約”, 「국어교육연구」 10, 경북대학교사범대학국어교육연구회, p.71-84

南豐鉉(1989), “한국의 固有 漢字”, 「국어생활」 17

노명희(1990), “한자어의 어휘형태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95, 국어연구회

\_\_\_\_\_ (1998), 「현대국어 한자어의 단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05),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묘춘매(1999), 「한국 어소도치 한자어의 생성과 그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영섭(1986), 「국어 한자어의 기원적 계보 연구: 현대한자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일동(1993), 「국어 한자어의 성분도치 현상에 대한 연구」, 강릉대학교 석사논문

성한갑(1983), 「固有語의 漢字語 代替에 관한 研究」,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_\_\_\_\_ (2005), “자순 도치 한자어 연구”, 「語文研究」 33-1, 중앙대학교 논문집, p.7-33

심재기(1987), “한자어의 구조와 그 조어력”, 「국어생활」 8, 국립국어원, p.25-39

\_\_\_\_\_ (1989), “漢字語 受容에 관한 通時的 研究”, 『國語學』 18, p.89-109

\_\_\_\_\_ (1990), “국어 어휘의 특성에 대하여”, 「국어생활」 22, 국립국어원, p.2-19

\_\_\_\_\_ (1971), “漢字語의 傳來와 그 起源的 系譜”, 金亨奎博士 頌壽紀念論叢, p.353-370

이상규(2000), “현대국어 한자어의 기능 단어 연구”, 「한국언어문화」 18, p.67-83

李翊燮(1968), “한자어 조어법의 유형”, 「이승녕박사송수기념논총」, 乙酉文化社,

- p.475-483  
 \_\_\_\_\_(1969), “한자어 비일음절 단일어에 대하여”, 「김재원박사 회갑기념논총」
- 장명희(2004), ‘자순도치 한자어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민영(1992), “국어 한자 복합어의 구조”, 「개신어문연구」9, p.77-98
- \_\_\_\_\_ (1994), 「국어 한자어의 단어 형성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程崇義(1987), 「韓中漢字語의 變遷에 관한 比較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 鄭憲哲(1994), “韓中 同形語와 日本製 漢字語”, 日本學報 創刊號
- 채연강(1977), 「韓國 漢字語에 대하여 : 十五世紀 正音文獻에 쓰인 二字漢字語 中心으로」, 成均館大學校 석사논문
- 蔡 悅(2008), 「韓中 字順倒置 漢字語 對照研究」, 전남대 석사논문
- 채 완(1987), 「國語 語順의 研究」, 탑출판사
- 채완·이익섭(2005),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최규일(1988), 「한국어 어휘형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범훈(1985), 「漢字借用表記體系研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崔尚鎭(1991), “國語漢字語發達의 國語史的 研究”, 「語文研究」19-4, p.424-437, 韓國語文教育研究會
- 최현배(1955),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중국어 논문>**
- 丁喜霞(2005), 「中古常用並列組音詞의 成詞和 演變研究」, 浙江大學博士論文
- \_\_\_\_\_ (2006), “聯想構詞:同義並列組音詞의 構成模式”, 「周口師範學院學報」23 -1, p.122-126
- 王 力(1958), 「漢語史論文集」, 科學出版社
- \_\_\_\_\_ (1980), 「漢語史稿」, 中華書局, p516~524
- 王傳德·尚慶栓(1996), 漢語史, 濟南出版社, p155~157
- 李思明(1997), “中古漢語並列合成詞中決定詞素次序諸因素考察”, 「安慶師院社會科學學報」1997年第1期, p.64-69
- \_\_\_\_\_ (2002), 「現代漢語同素異序詞論析」, 河北師範大學 碩士論文
- 吳倩楠(2005), 「現代漢語同素異序詞研究」, 河北大學 碩士論文
- 周玟慧(2007), “並列式組音異序結構管窺”, 「東海中文學報」19, p.321-344
- 竺家寧(1999), 「漢語詞彙學」, 五南圖書出版社, 타이베이
- 段玉裁(1775), 六書音均表古四聲說, 成書於乾隆 40 年(1775), 有經韻樓原刻本, 目前收集在北京大學圖書館, p.815
- \_\_\_\_\_ (1775), 六書音均表音韻隨時代遷移說, 成書於乾隆 40 年(1775), 有經韻樓原刻本, 目前收集在北京大學圖書館, p.816
- 洪麗娣(1997), “古代漢語中同素異序詞的研究”, 「沈陽師範學院學報社」21-2, p.43-45
- 高惠敏(1998), “關於同素異序詞研究的幾點思考”, 「松江學刊」, 1998年第2期, p.106-107

- 徐松根(1997), “組音節同素反序詞的語法・語義考察”, 「浙江師大學報」1997年第1期, p.107-110
- 徐 榮(2004), “試論近代漢語中倒序詞的成因”, 「五邑大學學報」6-3, p.88-95。
- 唐 伶(2002), 「組音節並列式複合詞語素序研究」, 東北師範大學 碩士論文
- 馬顯彬(2003), “古代漢語同素異序詞綜論”, 「湛江師範學院學報」24-1, p.58-61。
- 唐健雄(2004), “現代漢語同素異序詞語分析”, 「語文研究」2004 年第2 期,
- 曹廷玉(2000), “近代漢語同素逆序同義詞探析”, 「暨南學報」22-5, p.57-64
- 梅 廣(2003), “迎接一個考證學和語言學結合的漢語語法史研究新局面”, 「古今通塞：漢語的歷史與發展」第三屆國際漢學會議論文集語言組, p.23-47
- 張能甫(2000), “東漢語料及同素異序的時代問題”, 「古漢語研究」2000年第3期, p.74-77
- 張新紅(2005), “現代漢語同素反序詞論析”, 「伊犁師範學院學報」4, p.89-91
- 張 巍(2005), 「中古漢語同素逆序詞演變研究」, 復旦大學 博士論文
- \_\_\_\_\_ (2005), “古漢語同素逆序詞的修辭效能” 「修辭學習」總127期, 上海師範大學
- \_\_\_\_\_ (2010), “韓國語同素逆序漢字詞研究”, 「外語與外語教學」總250期, p.87-91, 上海師範大學
- 黃伯榮(1991), 「現代漢語教程」, 青島出版社, 青島
- 黃伯榮・廖序東(1997), 「現代漢語(上)」, 高等教育出版社, 北京
- 鄂巧玲(2001), “再談並列組音詞的字序”, 「甘肅教育學院學報」17-1, p.63-65
- 楊 奔(1999), “漢語同素反序詞源流初探”, 「廣西民族學院學報」21-3, p.103-106
- \_\_\_\_\_ (1999), “關於同素反序詞的規範問題”, 「玉林師專學報」20-4, p.47-49,69
- 葛本儀(2001), 「現代漢語詞彙學」, 山東大學出版社, 濟南
- 韓在均(1999), ‘同素同義逆順詞在漢語韓語中的差異表現’, 「漢語學習」1999年第3期, 南開大學, p.46-49
- 魏培泉(2000), “東漢魏晉南北朝在語法史上的地位”, 「漢學研究」18, p.199-230
- \_\_\_\_\_ (2003), “上古漢語到中古漢語語法的重要發展”, 「古今通塞：漢語的歷史與發展」第三屆國際漢學會議論文集語言組, p.75-106

**【中文摘要】****한국어 동소역순 한자어 형성의 제약**

過去既有的的研究中，只以詞彙的制約和句法的制約當作語順的判斷標準，因此有許多無法解釋之例外，本文針對同素逆順漢字語做全盤的檢討，並試圖重新建立淘汰機制，結果發現包括‘高母音/低母音，單母音/二重母音，清音/濁音’等三個規則的語音制約、詞彙制約與句法制約等三大規則，可以當作同素逆順漢字語的淘汰機制，其中又以語音規則作用最大。

以<韓中兩國常用詞彙不同者>為調查對象，48 雙詞彙中，適用於語音規則者有 38 雙，當中又以<高母音/低母音>規則影響最大。此外，本稿另一個檢視對象<韓中兩國常用詞彙相同，中文只使用 A 者>共 112 雙，受語音規則影響的有 85 雙，其中受原始中文的聲調規則者有 50 雙、適用聲母規則者 33 雙、適用韻母規則者為 2 雙。

**키워드(關鍵字/Key words): 동소역순어, 한자어, 제약, 도래기제**

